수석 프로그래머 재단과 갈등 끝 사표

광주비엔날레 '빨간 불'

행사 장소·규모 등 마찰…재단측 "사표 반려"

제6회 광주비엔날레(9월8~11월11일) 개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제 행사를 총괄하는 수석 프로그래머가 행사 장소· 규모 등을 둘러싼 재단과의 갈등 끝에 사퇴키로 해 개막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광주비엔날레는 13일 "시민참여 축제 프로그램를 맡은 김상윤 수석 프로그래머가 등기우편을 통해 지난 10일자로 재단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프로그래머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핵심 프로그램인 시민참여프로그램인 '140만의 불꽃'의 기획·추진을 맡아왔다.

김씨는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 도청앞을 배경으로 모든 행사가 기획됐다"며 "그러나 뚜렷한 이유없이 재단측이 중외공원벨트로 장소변경를 요구하는 바람에 행사의 정체성이 훼손돼 더 이상 수석프로그래머를 맡을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다.

김씨의 사퇴배경에는 지난해 자문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결정된 축제 장소와 내용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변경된 데다 원활치 못한 행사준비 과정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기존 행사장 위주의 축제에서 벗어나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설 옛 전남도청 일대를 개·폐막식을 비롯 시민 프로그램 진행 장소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재단이 최근 행사진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전야제를 제외한 모든 행사 장소를 중외공원 일대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기획했던 '무등 천지굿'이 취소되는 등 다수 시민 참여라는 행사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 재단은 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 도청 본관에 전시하려 했던 미술오케스트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립미술관으로 변경했다.

광주 5개 구청이 참가하는 온·오프라인 시민참여 축제 행사 역시 대폭 축소됐으며, 미술품 시장인 아트페어도 사실상 아트마켓으로 취지가 무색할 정도의 소규모 행사로 전락했다.

김씨는 "행사가 대폭 축소됐지만 그마저도 집행부에서 진행을 미루는 등 개막준비작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비엔날레 관계자는"축제 장소를 분산하는 것보다 비엔날레 전시장 인근에서 진행하는 것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장소를 변경했다"며 "또 축제프로그램도 아직 제안 단계이기 때문에 축제 프로그램이 취소됐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수석프로그래머의 사퇴서를 반려한 만큼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3천만원짜리 蘭' 간 큰 절도

희귀난 다수 훔친 3명 검거

"난초 한 분(盆)에 3천만원이라니…"

서울 구로경찰서가 개인 주택에 들어가 고가의 난초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13일 구속한 김모(48)씨가 일당 2명(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훔친 난초 중에는 시가 3천만원 짜리 희귀난인 '황화소심(黃花素心)' 등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이모(55)씨 등 공범 2명과 함께 2일 오전 3시께 구로구 개봉동 오모(48)씨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가 시가 3천만원 상당의 '황화소심' 등 난초 300여 분을 자루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춘란(春蘭)의 일종인 '황화소심'은 최고 시가 1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희귀 난초로 꽃에 잡색이나 잡티가 없고 다른 색의 선이 없어 깨끗함과 투명함으로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고가 난은 황화소심 외에도 홍화소심(紅花素心), 중투복색(中透復色) 등이 있으며 이들 난은 시가가 촉당 300만~700만원으로 4촉을 기준으로 하는 분당으로는 1천200만원~2천8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중에서도 황화소심이 촉당 750만원(분당 3천만원)으로 으뜸으로 치며, 피해자 오씨가 소유한 황화소심은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중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초중개상을 했던 김씨는 수년 전 물건 매매차 오씨를 만났다가 그가 집에서 황화소심 등 고가의 난초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공범들과 오씨 집 담을 넘어 '한탕'했으며, 경찰은 얼마 후 분실품과 비슷한 종류의 난초가 매물로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한 끝에 이들의 덜미를 잡았다. /연합뉴스

찌푸린 하늘

오전 한때 구름이 많겠으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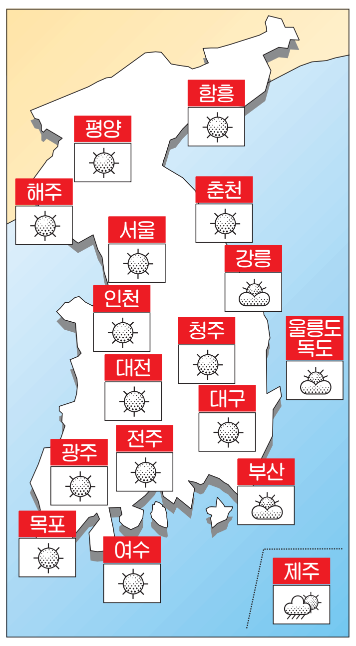
4월 14일 (음 3월 17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7~17℃
목 포	구름조금	6~14℃
여 수	구름조금	9~14℃
완 도	구름조금	7~15℃
구 례	구름조금	7~17℃
해 남	구름조금	6~16℃
장 흥	구름조금	6~16℃
고 흥	구름조금	8~15℃
순 천	구름조금	5~17℃
영 광	구름조금	5~14℃
진 도	구름조금	6~17℃
전 주	구름조금	6~16℃
남 원	구름조금	5~17℃
정 읍	구름조금	6~1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3.0m

목 포 밀물〈 02:37 14:38 썰물〈 07:50 19:55
여 수 밀물〈 09:25 21:51 썰물〈 03:21 15:21



▲해뜸 06:02 ▲해짐 19:04 ▲달뜸 19:45 ▲달짐 06:0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날 씨						
최저/최고	6/18	6/17	5/20	7/22	9/22	11/23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2008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전국 25개 시·군·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추가되는 등 2008년까지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33개 지자체의 주민학습 성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2008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교육부로부터 인프라 구축비로 지정 첫 해에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그동안의 교양·여가 위주에서 앞으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희망하는 지자체들은 5월12일까지 소관 지역 교육청과 공동으로 신청서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 중 확정된다.

지난해 예비학습도시로 지정된 광주시 광산구, 전남 곡성군 등은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곧바로 교육부의 본 심사로 추천된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2003년 순천시, 2004년 목포시, 2005년 광주시 남구가 각각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미나리 캐는 아낙들 봄내음에 취하고…

13일 나주시 금천면 지산리의 한 미나리꽝에서 농민들이 봄철 미각을 돋우는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교사·대기업 간부 등과 성관계후 거액 뜯어

'꽃뱀' 일당 4명 붙잡아

교사· 대기업 간부 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거액의 돈을 뜯어낸 속칭 '꽃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강진군 모 초등학교 교사 이모(54·강진군 강진읍)씨에게 "국악을 가르쳐달라"며 접근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모(여·38)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께 교사 이씨에게 "민요를 가르쳐 달라"며 접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비슷한 시기 "경마장에서 만난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며 대기업 간부 전모(40)씨를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달라"며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협박, 2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협박 등에 가담한 3명을 함께 붙잡아 조사중이며 달아난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의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 0.2g을 발견하고 입수경로와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등록금 인상 이례적 재논의

경희대, 학생요구 전격수용

전국 주요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내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가 학생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등록금 인상 문제를 재논의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희대는 최근 이 원 부총장이 주재한 가운데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생들의 총투표를 통한 등록금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지는 물론 납부까지 사실상 끝난 등록금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은 대학가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등록금 문제로 학내 진통을 겪고 있는 다른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는 등록금 재논의 방침에 따라 11일 등록금책정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등록금 인상 문제를 협의했다. 앞서 경희대 단과대 학생회와 학부 · 학과 학생회장단은 등록금 인상폭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재논의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해 93%의 찬성률로 재논의 요구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전남대 한의대 추진 의료 일원화 역행"

의대교수협 재논의 주장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박윤기 연세대의대 교수)는 전남대가 최근 여수캠퍼스(구 여수대학교)에 한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13일 성명서를 내 "의료일원화 정책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립대에 한의과대학을 설립하면 의료 이원화를 고착시켜 의료체계의 혼란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이 함께 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한의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대 내에 한의과대학을 설립하기 보다 현행 의과대학에 한의학 관련 연구소나 대학원 과정을 두는 게 좋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